

# 광주서 세계J여자핸드볼 한국경기 열린다

(7월15~31일)

## 한국, 중국·크로아티아 등과 B조 편성

한국이 7월 홈에서 열리는 제17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크로아티아 등과 같은 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회 조추첨에서 크로아티아·네덜란드·아르헨티나·중국·콩고민주공화국과 함께 B조에 이름을 올렸다.

백상서(한국체대) 주니어대표팀 감독은 "조추첨 결과에 만족한다. 20년만에 국내에

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남은 2개월 동안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 세계여자주니어대회 최초로 우승하겠다"고 말했다.

7월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천안·광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2009년 유럽선수권 1·2위 자격으로 자동 출전하는 노르웨이·헝가리를 포함해 각 대륙을 대표하는 24개국이 출전한다.

한국은 역대 대회에 세차례 준우승과 네

차례 3위를 차지했다.

우승을 목표로 잡은 한국은 이번 대회를 2012년 런던올림픽 전조천으로 삼아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조편성

▲A조=노르웨이·프랑스·독일·튀니지·세르비아·우루과이(광주) ▲B조=한국·네덜란드·아르헨티나·중국·콩고민주공화국·크로아티아(광주) ▲C조=헝가리·스페인·일본·브라질·태국 호주(서울) ▲D조=러시아·스웨덴·앙골라·몬테네그로·멕시코·홍콩(천안) /연합뉴스



신지애가 24일(한국시각) 열린 LPGA 투어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유선영(오른쪽)에게 물을 뿌리며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선영 사이베이스 '매치퀸' 등극

## LPGA 데뷔 4년만에 첫 우승·신지에 3위·양희영 4위

유선영(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유선영은 24일(한국시각) 미국 뉴저지주 글래스스톤의 해밀턴 팜 골프장(파 72·6585야드)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신지에(22·미래셋)를 2홀 차로 물리친데 이어 결승전에서도 안젤라 스탠퍼드(미국)를 3홀 차로 꺾었다.

국가대표를 지낸 유선영은 2005년 퓨처스투어 상금랭킹 5위에 오른 뒤 2006년부터 LPGA 투어에 뛰어들었지만 정규투

어 생활 4년이 지나도록 우승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유선영은 세계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37만5000달러(4억5500만원).

한국여자선수들은 초청선수로 출전한 서희경(24·하이트)의 KIA 클래식, 만민

니 박세리(33)의 벨마이크로 클래식 우승을 포함해 이번 시즌 3승을 합작했다. 28번시드를 받고 출전한 유선영은 준결승

에서 신지애라는 대어를 낚았지만 결승에서는 샷 감각이 좋지 못했다. 12번홀까지 1홀차로 뒤지던 유선영은 13번홀(파4)에서 스탠퍼드의 실수를 틈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승기를 잡은 유선영은 16번홀(파3)에서 티샷을 홀 옆 3m에 떨어뜨려 버디로 연결, 2홀차로 벌였고 17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

두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한 스탠퍼드는 자신의 볼을 집어들며 패배를 인정했다.

유선영에게 패해 3-4위전으로 밀려난 신지애는 양희영(21·삼성전자)에 3홀차 안승을 거뒀다.

# "뒷바라지 해준 언니에게 우승컵을"

## ■ 유선영 소감

"한달전 멕시코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트레스 마리아스 챔피언십에 출전했을 때였어요. 꿈이 너무 좋지 않아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 끔찍한 일..."

LPGA 투어 데뷔 4년만에 처음 우승한 유선영(24)은 그 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영어 통역과 각종 뒷바라지를 해주던 언니 유자영(28)씨가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서 언니가 탄 차량이 크게 파손됐지만 언니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LPGA 투어 5년째 들어서도 우승이 없어 마음 고생을 했는데 언니마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더 걱정이 됐다"는 유선영은 언니가 건강을 회복했고 24일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을 때 곁에 있어줘서 더욱 기뻐했다.

유선영은 "마침 한국의 부모님이 이사를 하느라 짐 정리를 아직 못해 TV도 시청할 수 없었고 인터넷도 연결이 안된 상태"라며 웃음을 지었다. /연합뉴스



# 볼트, 200m도 가볍게 우승 상하이육상 19초76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24·자메이카)가 200m 레이스에서도 가볍게 우승했다.

볼트는 지난 23일(한국시각)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다이아몬드리그 슈퍼 그랑프리 2010 상하이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19초76을 찍어 같은 나라의 안젤로 테일러(20초34)를 0.58초 차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지난해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자신의 최고 기록(19초19)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위와 큰 차이를 벌리며 가볍게 우승했다.

지난 19일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9초

86으로 100m 우승을 차지했던 볼트는 처음 나선 메이저대회에서 200m 정상을 밟으면서 시즌 초반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자 100m 결승에서는 현역 최고기록(10초64) 보유자인 카멜리아 지터(미국)가 11초09를 찍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엘리안 프레이저(자메이카·11초29)를 꺾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 핸드볼 백원철 국내 복귀

## 웰컴 코로사와 1년계약

"웰컴 투 코로사" 한국남자핸드볼 부동의 센터백 백원철(33)이 국내 무대로 돌아왔다.

일본 다이오 스틸에서 뛰었던 백원철은 20일 웰컴 코로사와 1년 계약을 맺고 6월 말 재개되는 SK 핸드볼슈퍼리그 2차 리그부터 출전한다고 24일 코로사가 밝혔다. 코로사 경영팀 사장은 "구체적인 연봉액은 밝힐 수 없지만 1억원선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남한고와 한국체대를 거쳐 1999년 일본 실업팀 다이오 스틸에 입단했던 백원철은 이후 스위스·카타르 등에서 뛰기도 했지만 2004년 일본으로 복귀했다가 한국에서 현역 생활을 마치고로 결심했다. /연합뉴스

# 원성진·박정상·이영구·백홍석, 첫 관문 통과

## 아시아게임 비록 대표 선발전

사상 최초로 아시아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둑 국가대표를 향한 1차 관문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기원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상동구 흥익동 한국기원에서 제16회 광저우아시아게임 남자대표팀 선발 1차에서 1회전을 개최한 결과 원성진 9단과 박정상 9단·이영구

8단·백홍석 7단이 나란히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종 4명을 가리는 아시아게임 남자대표팀 선발전은 7월말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된 다.

1차 1회전의 고비를 넘긴 4명은 2회전에서 다시 2명을 선발한 뒤 7~12위(허영호·김지석·강동운·안조영·윤준상·목진석) 선수들과 2차 예선을 벌여야 한다. /연합뉴스

# 한국 남녀 동반 첫 승리

## 세계탁구챔피언십 1차전

한국 남녀 탁구선수들이 2010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김택수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24일(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체코와 챔피언십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오상원(KT&G)·주세혁·유승민(이상 삼성생명)을 앞세워 3-1 승리를 거뒀다.

한국 남자는 25일 루마니아, 26일 대만, 27일 스웨덴, 우크라이나와 차례와 맞붙는다. 챔피언십에는 총 24개국이 4개 조로 나눠 풀리그를 벌인 뒤 각조 1위가 8강에 직행하고 2, 3위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8강 진출을 다툰다.

현정화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대표팀도 김경아·당에서(이상 대한항공)·박미영(삼성생명)의 활약을 C조 첫 상대인 프랑스를 3-0으로 물리쳤다.

한국과 같은 C조의 북한은 김정·김혜성·한혜성이 출전했지만 1차전에서 홍콩에 0-3으로 완패했다. /연합뉴스

# 양용은 32위 그쳐

## PGA HP바이رن넬스 챔피언십

양용은(38)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HP바이رن넬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32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24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존스TPC(파70·71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4개, 더블보기 1개를 기록하며 1오버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언더파 279타가 된 양용은은 스펠서 레빈(미국)·지브 밀카 싱(인도) 등과 함께 공동 32위로 대회를 마쳤다.

10언더파 270타의 제이슨 데이(호주)가 2006년 투어 데뷔 이후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올해 12차례 대회에 나와 6번 첫 통파에 그쳤던 데이는 지난해 3월 푸에르토리코오픈 공동 2위가 개인 최고 성적이었다. /연합뉴스

**‘축’**  
엘도라도 연륙교 개통  
“특급 펜션부지”  
• 위치 •  
신안군 중도 “엘도라도”  
정문 2차선 포장도로로  
우전해수욕장 진입로에  
위치한 모양좋은 평평한  
소나무 밭  
• 용도 •  
특급 펜션부지  
(사계절 관광객 운영가능)  
• 평수 •  
1,123㎡(계획관리지역)  
• 매매가 •  
1억3천만  
• 연락처 •  
☎010-9005-2223  
복돼지 공인중개사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빈집-고시포-리조트-상록-모향-해수욕장까지의 부지 빌트형식  
▶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함.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  
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  
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  
으로 펜션부지시 광주시역  
친목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공으로 지  
금이 투자적기!

**금당 공인중개사**  
T.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 감정가 이하  
• 영일권, 상부지구 중심지, 대지1010㎡(305평) 건평2996㎡  
(906평) 공시지가 27억 3천 300만  
• 동구 6차선도로와 3차선 도로 코너 대지 1948㎡(569평) 건평  
2109㎡(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300만  
• 신안읍 상업지 310㎡(94) 공시지가 3억 2천 200만  
• 마곡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5천 500만  
•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점 275㎡(83평) 1억 500만  
• 총장로5가 5층 건물 대지 333평 156 공시지가 3억 500만  
• 요양시설적합 함평군 월여면 도지 11139㎡(3370평) 건물  
1442평 경매감정가 18억 1천 600만  
• 금남로 상업지구 뒤 주택 영일읍 적합 공시지가 매도 8400 만원  
■ 매도·교환  
• 4층 상가주택 신안동 4차선 도로변 대지 184㎡(56평)  
건평461㎡(136평) 대지 1억 2천 200만  
• 공산구 잠수동 그린벨트 산 5000평 매도 1억  
• 충효동 대지 147평 공시지가 7천만원 매도 7700만원  
• 전영주택지 송산유원지 부근 195평 사찰도 적합1억  
• 삼일지역 나주시 금천면 소재지 광복간도로점 1083평  
공시지가 8억 4천 400만 매도 9억  
• 목욕탕·모텔·상가 매곡동 대지 643㎡(195평) 건평 941평  
전세 2억3천 300만 월 670 대출 10억 매도 15억5천  
• 내대지 측사거리 월곡동 주공 아파트 입주 준주거지  
472㎡(143평) 공시지가 4억3천 300만 매도 5억3천  
• 화순 도곡면 관리지역 394평 교환가능 3억2천  
• 하남2지구 대지 62평과 임곡동 준주거지 265평을 합하여  
건물과 교환가능 5억3천  
• 매월동 서중동 부근 2314㎡(702평) 8억2천  
• 공산구 우산동 2220평 하차장동 다용도 22억  
• 풍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187평 공시지가 5억7천 600만 매도 2억2천  
■ 주택·아파트·임대  
• 아파트 연세동 현대 201㎡ 대출1억 교환가능 1억5천  
• 주택 화순 능주면 소재지 337㎡(101평) 2400만원  
• 금남로 5가 사거리 총합 29평 건물의 2층, 3층, 4층을 분리하  
거나 합하여 병·의원 임대, 조건은 협의함.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  
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규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행정직, 자선단체간인력 등  
학·석사 학위자 석사학위 취득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설기관 인력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방,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공공기관 중개업자 2년 이상,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원 장 이영구 교수 062-670-2421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문의/전화 www.gred.kr

**폴라리스 복합상가**  
**분양/임대**  
봉선동 2만여세대 완전 중심 상권 / 최고의 투자가치  
모두가 꿈꾸는 탁월한 선택, 당선의선택이 당선의미래를 만듭니다.  
봉선동 중심상권!! 최고의 입지!!  
봉선동 폴라리스 복합상가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의  
미래가치가 보이는 성공사업을 약속합니다.  
편리하고 넓은 주차공간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하 60대, 지상 12대**  
1F 프리미엄 상권으로 최고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은행/대형음식점/메트로푸드/약국  
귀금속/동동병원/랜드마크리조트/커피전문점 등  
2F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병의원/한의원/치과/미용,미부관리/커피전문점/영구점  
3F 밀집된 학군으로 최적의 조건 형성  
권/장/업/종 입사전환형/독서실/보습학원/외국어학원/체육관/기타학원  
4F 대단위 유흥 인구나 소비여력의 최적화 상권  
권/장/업/종 스포츠센터/메이저레스토랑/스크린골프/학원/기타  
☎062)674-4900